

4·3특별법 개정안 천덕꾸러기 신세되나

21대국회 발의된 지 4개월 불구 소위에서 결론 못내
최근 개정안 상정 안되고 다른 법안들 심의에 밀려
정부·여당 결단 없으면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 우려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소위에서 매번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젠 안전 상정조차 이뤄지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해당 소위에선 4·3특별법 개정안이 타 법안의 심의를 위해 후순위로 내몰린 천덕꾸러기가 된 모양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이 지난 7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핵심 쟁점인 배보상을 둘러싸고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

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안전으로 상정될 때마다 타 법안 심의 지연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7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총 46개 법안을 상정했는데, 24번째로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에서 논의가 지체되며 4·3 법안에 앞서 올라온 20여개 법안만 논의된 상태로 결국 오후 6시에 산회했다.

다음날 18일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에서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총 36개 안전 중 2번째 법안으로 상

정됐으나, 오전 시간 내내 결론을 못내자 소위는 4·3을 미뤄두고 다른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된 날이면 국회 회의장 주변에선 타 법안 관계자들이 법안 심의 지연에 답답해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한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달 24일과 25일, 30일 열린 회의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고 타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 위해 밀린 법안 심의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발의된 후 몇 차례 소위에 상정되다가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자 정부 부처간 조율을 이유로 안전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에는 사실상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12월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11월 남았다”며 “주요 법안을 이번 주까지 처리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재차 당부해 여전히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에도 “5·18 관련 법안과 4·3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국회=부미 기자 bu885@ihalla.com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α' 시행

원 지사, 방역대책 곧 발표
입도객 점검·실효성 등 고려
지역사회 특성 반영 최종결정

11월 한달간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발생하는 등 n차 감염 확산세에 따라 제주도가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α(알파)'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단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형 방역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 지사는 “관광객이 많고 도민이 대부분 수도권을 방문하는 제주도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도민들이 (외부에서) 감염돼 돌아올 때 접점부에 초점을 맞춰 제주형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

다”며 “1.5단계를 기점으로 제주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고 1~2일 내로 최종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가진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입도객 점검·실효성 등을 고려한 제주형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적이나 인원 제한 등 정부나 수도권의 방역 지침을 제주에 그대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지키지 못할 기초를 내세운다면 관광이나 서비스 업종에 적용하는데 큰 혼선이 있는 데다 제주사회의 경제적인 타격과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원 지사는 타지역 입도객 등 도외방문자에 대한 관리와 확진자의 동선 발표에 대해 행위 유형과 감염 취약업종, 장소를 특정해 탄력적으로 적용 관리가 필요하고 업종들의 생업 보호와 도민 알권리 실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금 기자 haru@ihalla.com

제주관광공사 국내 최초 데이터 분석지원 서비스

제주관광공사가 국내 최초로 관광 데이터 분석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30일부터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식 오픈은 이달 3일부터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주소 정보를 전자지도상에 매칭하는 지오코딩 기술을 활용해 관광업계가 보유한 자체 데이터와 지리정보결합을 통해 지역별 방문고객·입지분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별 실시간 인기도와 혼잡도를 제공하는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 서비스'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파일 다운로드 및 URL 공유 등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더라도 주소 정보



신비의 대나무꽃 활짝
보기가 좀처럼 어려워 '신비의 꽃'이라 불리는 대나무꽃이 30일 서귀포시 영천동 영천오름 인근 대나무 숲에서 활짝 피어 교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가 포함된 엑셀파일만을 가지고 지리정보와 결합한 분석을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서비스가 여행코스 상품 개발, 킷보드 및 여행자 대상 보관함 서비스 등의 입지 선정, 제주관광산업 연구 등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개인은 3일부터 이메일(tour.bigdata@jto.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와 함께 가이드를 전달해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며, 신청자 및 관

수능날 '쌀쌀'... 수험생 체온관리 유의물

3일 아침 최저기온 6℃, 체감온도는 1-3℃ 더 낮을 듯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3일 제주지역은 찬바람의 영향 등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은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예비소집일인 오는 2일과 수능 당일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또 아침 최저기온은 6~8℃, 낮 최고기온은 10~15℃에 머물러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기상청은 수능 당일인 3일 한파특보가 발표되거나 눈이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찬 공기의 강도가

강해지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1~3℃가량 더 낮겠다고 예보했다.

또 수능을 앞둔 1~2일 제주도 전 해상엔 파도가 0.5~2m로 대체로 잔잔하게 일어 도서지역의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동안 해상교통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일이 예년보다 늦어 평균적인 기온이 낮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주기적인 환기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얇은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시신은 4·3 수형행불인 첫 재심 결정 5면

양! 삼춘! 뽕살대랑 「탐나는전」으로 결제하게 마십시오

탐나는전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제주지역화폐입니다!

「탐나는전」 구매?

- ※ 1인 월70만원 / 연500만원 한도 내
- 카드·모바일(QR)
 1. 「탐나는전」스마트폰APP 다운로드 ▶ 카드신청(배송 3~4일) 후 등록 및 충전(구매) ▶ 카드 및 모바일(QR) 결제 사용
 2. NH농협은행·제주은행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구매)
- 지류(종이)상품권 : NH농협은행·제주은행

「탐나는전」 소비자 혜택?

- 카드·모바일(QR) : 어느 가맹점이나 결제 시 10% 실시간 캐시백 제공
- 지류(종이)상품권 : 구입 즉시 10% 할인!

「탐나는전」 사용처?

-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가맹점 등록 업체
- ※ 대규모점포, 사행성산업, 유흥·단란주점 등 사용불가

이용문의 : **1600-3971** / 가맹점 신청문의 : **1600-0836**